"말씀에 승부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삶운동 주도적인 제기, '교회갱신 목회자로부터' 강조

말씀묵상은 하나님이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내 삶과 연관하여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락교회 지형은 목사

– 말씀삶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삶운동'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며,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말씀삶운동은 무엇입니까?

= 말씀삶운동은 이천년 역사 동안 교회가 늘 해왔던 것인데 방법과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삶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말씀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묵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내 삶과 연관하여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월간 말씀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성락교회 내 말씀삶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모든 성도가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꾸준히 말씀묵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묵상을 진지하게 경험하는 분들은 삶에 다가오는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말씀삶성경대학'이 설치되는데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교육 기능을 담당하던 '말씀삶훈련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말씀묵상 훈련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를 교육하고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삶으로 잇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말씀삶운동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과 연관하여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걷고 있는 방향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성도들이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삶운동에서 더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말씀삶운동의 신학적이며 목회적인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풀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씀삶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는지요?

=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66권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말과 글로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 생각을 나눌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내년에 구체화되는 '말씀삶성경대학'에서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밖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도가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는 매일의 생활에서 철저하게 말씀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장로 등 직분자들이 직분들에 대한 계급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재석